

프랑스 파리서 전주문화 집중 조명

시-주프랑스 한국문화원-관광공사, 내달까지 'Taste Korea! 전주스페셜' 진행 한식·한지 등 소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현지인 대상 한식문화교육 등 운영

한식과 한지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의 우수한 문화 자원이 유럽의 문화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 조명된다.

전주시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는 5월과 6월 두 달간 프랑스 파리에서 전주의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Taste Korea! 전주스페셜'을 진행한다. 지난 4일 밝혔다.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코리아(Taste Korea)는 한식 등 프랑스 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한국의 전통문화 자원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올해는 전주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Taste Korea! 전주스페

셜'로 진행된다.

시는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프랑스에 널리 알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문화를 프랑스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대한민국 음식 수도인 전주의 음식을 집중 소개해 프랑스 등 유럽 관광객의 전주 방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사 추진을 위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행사 추진방안 및 내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전주시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프랑스 기자의 방한취재 지원과

관련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전주 스페셜 행사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사전홍보 작업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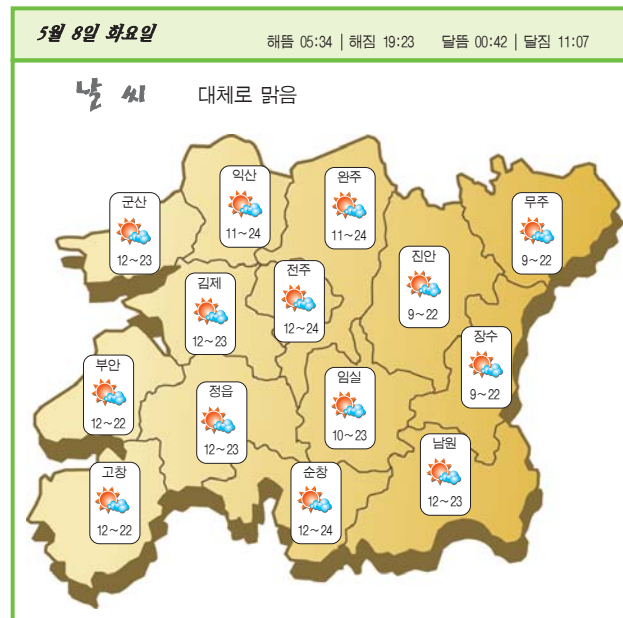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파리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문화교육 K-Food △전주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들어내는 '나의 BIBMBAP' 콘테스트 △한국소리 강좌 △한국문화 잡지 및 한식 디지털 레시피북 제작 등을 진행하면서 전주의 예향, 문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전주음식과 한지, 전통주 등의 집중 홍보를 위해 △전주 한식 △한지문화 컨퍼런스 및 시연회 △전

주의 날(전주 관광과 한식의 만남 행사) 메인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재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은 "전주는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 이번 'Taste Korea! 전주스페셜' 행사에 전주시에서 적극 참여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럽에 널리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행사에 적극 도움을 주신 전주시 모든 관계자 분들과 명인·명장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한식과 한지 등 천년역사와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닌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라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전주의 문화영토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북 학력, 시민과 함께 고민

지자체·학부모 등 참여 도교육청 참학력 자문단 1차 협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의 학력신장 협의체 중의 하나인 참학력 자문단(학부모 시민분과) 1차 협의회가 최근 열렸다.

참학력 자문단(학부모 시민분과)은 전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름다운 배움 전북나래, 학부모운영위원회, 언론 등에 몸담고 있는 학부모·시민, 초·중·고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작년 12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도 4회 자문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 학력과 새로운 학력에 대한 관심, 참학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들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교육부의 각종 '안'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정책 등의 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과 학부모·시민의 소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정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내년 학력신장에 반영하고, 대입제도개선에 대한 최종 판단을 부여받은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외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참학력 정책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공동연구 현안을 공유하고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참

학력 신장 정책과 학교 현장의 사례 등을 공유하며 도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혁신교육의 시작과 함께 2012년부터 기존의 암기위주의 지식축적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력을 모색해왔으며 이를 참학력으로 명명하였다. 참학력은 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력으로 기존의 입시를 위한 성적중심의 학력관에서 벗어나 지성, 인성, 시민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학교에서의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력이다. 전북교육청은 참학력을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길러야 할 역량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능력, 소통·참여 능력, 생태·문화 감수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참'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True or False 개념이 아니고 Authentic Learning과 유사한 의미로, 실제적인, 자발적인, 자기주도적인, 독창적인 배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력을 잘못된 학력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력을 확장시켜 인지적인 영역 뿐 아니라 비인지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시험만으로 평가되는 학력이 아니라 '미래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안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평가 될 수 있는 학력을 의미한다. /기동취재반



어린이날 건지산엔 웃음 한가득

전북대 어린이날 축제, 큰 호응 얻어

5월 5일 어린이 날,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어린이들의 웃음과 함성으로 가득했다.

전북대가 매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열고 있는 어린이날 축제 '출발, 어린이 모험대'가 수천 명의 지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 열린 것.

이날 박물관 일원에는 대학 기관과 학과들이 직접 꾸민 20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돼 어린이들을 맞았다.

이곳에서는 채소비누 만들기나 수학 원리로 구성된 보드게임, 전통놀이 체험, 목재 캐릭터 만들기, 풍선아트,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즉석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대학 탐방 프로그램으로 박물관과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설립된 도서관,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동취재반

정부 신북방정책에 발 맞춰... 전북대,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과 교류 강화

세브첸코 국립대·키예프 공과대 방문 항공·재료소재분야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3년간 추진해왔던 러시아 등 CIS(독립국가연합)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 2017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에 전북대 공학 분야의 우수 연구진을 파견해 국제 공동과제

및 학생, 교수 교류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지난 2일 김학용 기획처장과 김철생 공과대학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인 세브첸코 국립대학과 키예프 공과대학을 방문해 우주항공 및 재료소재분야 등에 대하여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미하일로 즈구로브스키(Mykhailo

Zgurovsky) 키예프대학 총장은 국제협력과제 및 연구소연계 등을 통해 국제 공동과제를 만들어 양국가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도출을 주문했다.

이어 3일에는 우크라이나 학술원 가스연구소 연구진과 접견을 통해 쓰레기 처리 기술을 비롯한 응용과학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특히 전북대가 보유한 세계 5위 수준의 고온 플라즈마 연구소와 연계한 공동과제

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기술교육기관인 리비우공과대학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교수, 학생교류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우주항공, 핵물리학 분야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다. 재료소재 공학분야와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환경 정화 분야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